

# 목 차

---

## ■ 가을을 보내며 생각하는 내 인생, 내 기업

|  |           |
|--|-----------|
| Executive Summary .....                            | 1         |
| 1. 인간 존재의 의미 .....                                 | 2         |
| 2. 소버(Sober) : 무모한 환상에서 깨어나라! .....                | 6         |
| 3.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 : 본원적 경쟁력을 키워라! ..... | 11        |
| 4. 더 나은 가치 창출을 위하여 .....                           | 15        |
| <b>■ HRI 경제 지표 .....</b>                           | <b>17</b> |

## 가을을 보내며 생각하는 내 인생, 내 기업

### ■ 인간 존재의 의미

- 전 우주적 관점에서 은하계에 있는 10의 22승개의 별 중 하나인 지구에 인간이 존재 한다는 것은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 실현된 결과로서 무거운 의미를 지님
- 한편 영국의 시인 엘프렛 로드 테니슨은 인생의 의미를 오크(Oak)의 사계절에 견주어,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40세에는 '소버(Sober)'해야 하고, 인생의 겨울에 접어들면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함

### ■ 소버(Sober) : 무모한 환상에서 깨어나라!

- 인간이나 기업이나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남 즉, 소버(Sober)해야 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
  - 잘못된 꿈 : 인류 역사에 있어 천년 동안이나 지속된 연금술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소버(Sober)해야 했던 대상임
  - 비현실적 신념 : 전쟁 후에도 '패한 군인은 살아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일본 군인 오꼬이의 일화는 무모한 환상을 깨지 못했을 때의 위험성을 일깨워 줌
  - 안일한 가치관 : 한국 기업에 있어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일 주의'와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의식'은 외환위기로 대규모 기업 도산이 이어지면서 소버(Sober)해야 할 근거 없는 믿음이었음이 증명됨

### ■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 : 본원적 경쟁력을 키워라!

- 인생의 겨울 즉,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 육체적 아름다움이 소멸된 이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를 갖추어야 함
  - 인간 미(美) :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이후 남아 있는 경쟁력은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인간적 미(美)에서 나오며 이러한 인간미가 바로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임
  - 본원적 경쟁력 : 수에즈 운해 개통 경축 행사 오페라로 제작된 '오페라 아이다(AIDA)'는 그 자체의 매력 즉, 본원적 경쟁력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음
  - 가치 증대 :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농심의 '신라면'이 바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임

# 가을을 보내며 생각하는 내 인생, 내 기업<sup>1)</sup>

## 1. 인간 존재의 의미

인간의 존재는 제로나 다름없는 확률이 실현된 결과로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는 우리의 영원한 과제임

우리는 흔히 기업은 곧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이 곧 사람이라면 인간 이해에 앞서가는 기업이 선진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를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속에 천 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 속에는 우리 은하계 같은 대형 은하계가 천 억 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에 10의 22승개의 별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직까지 이 방대한 우주 속에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지구 하나이고 앞으로도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0의 22승분의 1 즉, 제로나 다름없는 확률이 실현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간 존재에 부가된 무거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간 탐구는 우리의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탐구의 대가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 경영학에서 인사나 조직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어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윌리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비극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 하는 비극 탐구 차원에서 보면 셰익스피어가 현재까지 인류가 낳은 최고의 대가입니다.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 인도주의에 대해서는 톨스토이가 부활, 전쟁과 평화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이

1) 본 자료는 2005년 12월 5일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윤석철 서울대 명예 교수/한양대학교 석좌교수가 발표한 “가을을 보내며 생각하는 내 인생, 내 기업”을 요약 정리한 글임.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엘프렛 로드 테니슨 등을 인간 탐구의 스승으로 말할 수 있음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톨스토이를 인간 탐구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탐구를 위해서 제가 모시고 온 스승은 시인입니다. 엘프렛 로드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 영국에서는 로리트(Laureate), 한국에서는 월계관을 쓴 시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국의 왕실에서는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을 모셔서 이런 칭호로 대접하고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를 부탁해서 낭송하도록 합니다. 참 부러운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 정도 되려면 청와대에서 시(詩) 담당 특별 보좌관으로 모시고 우리 국민의 숭앙을 받는 그런 분을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몇 백년이 가도 될지 의문입니다.

엘프렛 로드 테니슨이 살던 집 앞에 오크(Oak) 나무가 있습니다. 오크를 우리나라 사전에서 찾으려면 참나무라고 번역이 되지만 우리나라 참나무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라고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크라고 불러주십시오.

우선 이 분의 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운선도의 오우가에 나오는 송죽(松竹) 즉, 소나무와 대나무가 국민의 숭상을 받는 나무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숭상 받는 나무가 오크입니다. 오크는 무늬가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고급 가구에 쓰이고 집안을 빛내는 아름다운 계단을 만듭니다. 튼튼하고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까지 아름다워서 고급술을 담은 술통으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서양 문화 속에서 숭상 받는 오크! 이 거대한 오크가 테니슨의 서재 앞에서 보면 봄에는 영롱한 짝을 피우고, 여름에

는 짙은 녹음,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그 단풍이 다 떨어져서 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늠름한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엘프렛 로드 테니슨은 'The Oak'라는 시를 통해 인생의 네 계절을 오크의 네 계절로 견주어 설명함

오크의 네 계절을 인생의 네 계절,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를 인생의 봄으로, 그 이후 또 20년을 인생의 여름, 그 후 20년은 가을, 그 후를 겨울이라고 견주어 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준 시(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The Oak'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당신들 인생을 젊어서나 늙어서나 다음과 같이 살아주소'로 시작됩니다. 봄철에는, 즉 인생의 봄에는 오크처럼 브라운 인 스프링(Bright in spring), 봄의 실록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여름을 시적 표현으로 썬머리치(Summer-rich)라고 했습니다. 여름에 풍성한 오크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름에 오크는 열매 맺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남이 먹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벌어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진정한 의미의 리치(rich)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결실을 남에게 돌려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인생을 간단히 회고해 본다면 인생에서, 인간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학생시절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몇십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백 달러가 안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해서 그때는 돈,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어서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 배도 안 고프고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같이 비빔밥으로 점심을 같이 하던 동료 교수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개각을 발표해서 장관이 되고, 어떤 경우는 총리도 되고 그래요. 질투가 났어요. 제가 질

투를 느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인생에서 이런 명예, 명성 이게 과연 더 높은 가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테니슨의 써머-리치를 이해한 후 요즘은 인간 사회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잘 사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구세군 냄비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구세군 냄비에 지갑 털어서 돈 넣는 것 이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 해결은 안 되고 부분적 가치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거리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고용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는 안타까운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서울대 학생은 여러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은 반대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뼈아프게 겪으면서 저는 고용창출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면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 인간 사회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즉 테니슨이 말한 써머-리치라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가을인 40대에는 술 취했던 상태에서 깨어남 즉, 소버(Sober)해야 함

그 다음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테니슨은 오토름 체인지(Autumn-changed)라는 자기 고유의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oberer-hued Gold Again'라는 표현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 소버(Sober)하는 단어는 '술 취했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버(Sober)라는 의미를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가지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이 옵니다. 모든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옷을 입고 있던 오크가 그 옷을 다 떨쳐

인생의 겨울에는 버리고 이제 나체가 됩니다. 그 나체를 테니스는 네이키드 스트레ング스(Naked Strength)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오크의 겨울 입을 벗고도 존재 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도 우람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을 테니스는 '옷 벗은 후에도 남아있는 힘'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키드 스트레ング스(Naked Strength)를 지녀야 함

이제 소버(Sober)와 네이키드 스트레ング스(Naked Strength)에 담긴 의미를 우리의 상상력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 2. 소버(Sober) : 무모한 환상에서 깨어나라!

먼저 소버(Sober)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버(Sober)는 술에 취했거나 그릇된 환상, 유혹 이런 데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 바른 정신을 회복한 상태라는 것이 본질적 의미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히딩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히딩크 얘기를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오늘 제가 분석하는 히딩크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히딩크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이미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였던 이동국 선수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동국이 대표팀 명단에 없다고 했을 때 히딩크가 바로 답변합니다. 우리는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플레이어(player)가 필요하다. 당시에 이동국 선수는 오빠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부대의 인기라는 환상에 이동국이 취해 있다는 걸 히딩크가 눈치 챈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드리블을 할 때 드리블도 적당히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지 드리블만하면 오빠 부대는 박수를 치겠지만 불필요한 드리블은 볼을 뺏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골 문전에 와서 다른 선수들에게 넘겨주면 골 확률이 훨

진 높아질 수 있는데 오빠 부대를 인식해서 자기가 넣으려고 무리하다가 계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히딩크는 네델란드 출신이고, 네델란드는 철학이 강한 나라입니다. 히딩크는 아마 테니스의 소버(Sober) 철학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국은 오빠 부대의 스타라는 환상에서 소버(Sober) 하지 못한 선수다. 그래서 가차 없이 명단에도 안 넣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하자 이동국 보다 못하던 친구들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라서 전 국민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얼마나 절차부심 했겠습니까?

이동국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 끼지 못한 것에 자아 위기를 느꼈을 것이고 이후에 절차부심을 통해서 드디어 나한테 오빠 부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 오빠 부대에서 소버(Sober)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프레레 감독 때에는 황태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국 만한 선수를 못 찾았다고. 소버(Sober)한 이후에 이동국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버(Sober)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과거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하면 된다'는 무모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함(Sober)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디에서 소버(Sober) 해야 하느냐? '하면 된다' 이것은 한국 기업의 지도자들이 1인당 백 달러도 안 되던 이 나라 경제를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내면서 무수히 강조하셨던 슬로건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흐릅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하면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과 경쟁하면서도 하면 되는 문제들은 많이 끝났습니다. 물론 '하면 된다'는 신념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신념입니다. 근거 없는 신념은 소버(Sober)의 대상입니다.

연금술은 근거 없는 믿음으로 반드시 깨어나야(Sober)할 대상임

연금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술은 쇠, 구리 이런 보통 금속을 어떻게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금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노력이었고, AD 7세기부터 17세기까지 천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금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물론 연금술 자체는 실패했지만 유럽은 연금술을 위한 천년의 노력 속에서 화학의 발달을 이루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과학이 발전시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연금술은 왜 소버(Sober)해야 할 근거 없는 믿음이었습니까? 우주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결합체는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은 서로 반발해야 할 동정의 양전기를 가진 프로톤(Proton: 양성자)과 중성의 뉴트론(Newtron: 중성자)이 강력한 바인딩(binding) 에너지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바인딩 에너지가 연금술자들이 분해하려고 했던 쇠, 구리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은 이미 바인딩 에너지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고 더 약화되어서 우라늄이 되면 스스로 분개할 만큼 바인딩 에너지가 약합니다. 따라서 가장 바인딩에너지가 강력한 원소를 붕괴시켜서 다른 원소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천년 아니라 만년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영웅 요꼬이(横井) 이야기입니다. 1942년 요꼬이가 젊었을 때 남태평양 어느 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싸우다가 종전소식을 들었는데 요꼬이는 군에서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군대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으면 살아 돌아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는 살아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싫었는지 나 여기에서 살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30년을 삽니다. 살다 보니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섬 아래로 내려가서 밤에 도둑질을 가끔 했습니다. 이게 결국 꼬리가 길다

과거 전쟁 영웅인 일본의 요꼬이는 전후(戰後)에도 전쟁의 환상에서 깨어나지(Sober) 못한 군인이었음

보니까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섬 아래에 있는 주민들이 이 섬에서 싸우던 일본 패전병들이 남아서 하는 것이다 해서 일본 영사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깜짝 놀라서 요꼬이를 모시러 갑니다.

이 때 요꼬이는 '나는 군인으로써 살아 돌아갈 수가 없다 살아 돌아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에서 직속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한다는 것도 배웠느냐' 하니까 '당연히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꼬이의 군적부를 뒤져서 전쟁 당시 직속상관이 누구인지 찾았더니 1972년 당시 아직 그 양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모셔다가 옛날 군복과 같은 군복을 만들어서 입혀서 요꼬이에게 데리고 가서 단독 면담을 시킵니다. '나를 아느냐' 하니 '압니다'라고 하더랍니다. '너의 상관이 명령한다. 전쟁은 이미 옛날에 끝났으니까 돌아가자' 하니 '예' 하면서 직속상관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1972년 2월 20일에 일본에 비행기로 돌아가면서 연신 하는 말이 '수치스럽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였습니다. 그 뒤로 요꼬이는 지역구의 연수회에 자주 초빙이 됩니다. 초빙되어서도 살아 돌아온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일본에 유행가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출장을 가서 일을 끝내고 사무실에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수치스럽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게 1970년대 일본에 유행어가 됐습니다.

충절의 정신은 찬양 받아야 되겠지만 근거 없는 믿음,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면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은 소비(Sober)의 대상입니다.

우리 기업에게 있어 안주의식, 대마불사 의식 등은 소버(Sober)의 대상임

기업에게는 일류 의식 혹은 안주 의식 혹은 대마불사 의식 이 게 소버(Sober)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한 미디어는 매그네틱 테이프 시절에 세계 시장 25%를 점유하고 있던 아주 대단한 과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한 미디어의 사주가 이병철 회장님의 셋째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백그라운드 역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한 미디어는 탄탄대로야, 안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류 의식, 안도 의식 때문에 시디롬이 나오고 하면서 매그네틱으로 만든 기록 매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새한 미디어는 채권단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그룹도 대마불사를 믿은 게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대마불사를 믿고 은행 돈을 너무 지나치게 가져다가 지나친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상 자료를 보면 IMF 구제 금융 이후에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16개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다 일류 의식, 안주 의식, 대마불사에서 소버(Sober)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율이 1위라고 합니다. OECD국가 중에 1위니까 세계 1위라고 봐야겠지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기업체에 취업해서 월급으로 1, 2백만원 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이직률도 높습니다. 저는 인생 65년을 살아보니까 일확천금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어도 결국은 비극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생은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쌓아올리는 자세로 살아야지 일확천금 꿈꾸면 모두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동양의 성자 공자는 논어(論語) 위정(爲政) 편에서 40세가 되면 불혹 즉, 유혹에서 소버(Sober)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가 40세 부터를 가을로 봤고 가을은 소버(Sober)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공자 역시 40세가 되면 유혹에서 소버(Sober)해야 한다. 동서양이 일치했습니다.

### 3.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 : 본원적 경쟁력을 키워라!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인생의 겨울에는 본원적 경쟁력 즉,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를 지니고 있어야 함

다음으로 겨울의 주제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으로써 옷을 벗은 후에는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원로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분의 말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국민이 통일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동안 옷을 벗었다 하면 감옥 가지 않으면 국민의 원성과 의혹으로 존경과는 거리가 멀어 집니다.

저도 별것 아닌 대학 교수직을 지난 8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히 테니스의 시를 어려서부터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학 교수로 옷을 벗은 후에 나에게 어떤 힘이 남아있어야 하는가! 그 힘을 기르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젊은 시절에 지녔던 육체적 아름다움 역시 나이 들면 벗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옷은 벗은 후에도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입니다.

링컨이 얘기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게 지금 들으면 당연한 소리가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1863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희생된 많은 군인들을 위해 거기에 국립묘지를 헌정하면서 링컨이 했던 이 2분간의 짧은 연설에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0여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 교과서에 아직도 생생히 교육 자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개통  
경축 행사용으로  
제작된 오페라 아  
이다(AIDA)는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으  
로 인해 1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  
랑받고 있음

한편 수에즈 운하는 1869년 개통 완료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이전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왕복하려면 남아프리카까지 돌아야 했습니다. 그 동안 비타민C 부족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렸습니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수에즈 운하는 10년 공사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 10년이라는 거대한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이렇게 인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 하 개통 경축식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행사용으로 뛰어난 음악가 베르디에게 수에즈 운하 개통 경축용 오페라를 하나 만들어서 경축 행사의 일부로 공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이다(AIDA)입니다. 이 아이다가 수에즈 운하 개통 경축이라는 그 행사의 이미 140여 년 전에 끝이 났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이다가 수에즈 운하 경축용으로 제작됐다, 행사용으로 제작이 됐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이다는 영원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3대 오페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옷을 벗은 뒤에도, 경축용이라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이런 힘, 이것이 바로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기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탐구와 기업 탐구가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경우 옷을 벗은 후에도 남아있는 힘이 무엇일까? 존경, 은퇴한 후에도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력이 떨어져서 선배님 도움을 청하러 올 수 있는 실력, 인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미라는 개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인간미는 매력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희생하는 아름다움을 지낼 때 그 가치가 인정됨

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옷 벗은 후에도 인간미는 매력의 원천이니까 매력의 대상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인간미 할 때 아름다울 '美'자를 찾으려면 羊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아름다울 美자를 못 찾습니다. 羊부에 들어가서 羊 밑에 큰 大자를 더하면 아름다울 美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과 羊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서양에서도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는 양을 희생의 재물로 바쳤습니다. 중국에서도 큰 제사를 지낼 때는 소를 바치지만 보통 때에는 양을 주로 바칩니다. 양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美, 특히 인간미가 있다고 할 때는 헌신적 생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자기희생을 앓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또 조직 생활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일을 희생하면 자기 조직에 열 혹은 백의 이득이 가는데 '내가 왜 나를 희생하느냐' 이런 사람에게서 아름다울 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미는 인간적 매력이고 인간적 매력은 옷을 벗은 후에도 길이 남아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 봄에 굿모닝 신한 증권 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등일 줄 알았는데 영똥하게도 사소한 제품을 파는 농심이 1,297%로 아주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더욱이 베인 앤드 컴퍼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sustainable growth potential)을 가진 기업을 한국에서 네 개를 선택할 때 거기에다 농심이 포함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세계 교과서에 없고 오직 네이키드 스트렝

스(Naked Strength) 이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제품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임

이 농심의 주력 제품은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의 가격은 한 봉지에 600원입니다. 신라면을 먹고 있는 소비자를 어느 마케팅 회사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 봉지에 600원 하는 신라면을 구입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은 만약에 이 600원이라는 가격이 1,000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합니다. 그래도 귀하께서는 신라면을 드시겠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하겠지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신라면을 사먹나, 신라면을 먹는 이유, 그것을 경영학에서는 고객이 제품에게서 느끼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 신라면을 사 먹는 이유, 신라면에서 느끼는 가치를 생각하겠지요. 고객이 신라면에서 느끼는 가치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한끼 끼니가 해결이 됩니다. 둘, 설거지 걱정, 반찬 걱정을 최소화하며 한끼를 해결합니다. 편의성이지요. 셋, 얼큰하고 시원한 우리 국민 전통의 식품 문화에 잘 들어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에서 신라면을 많이 즐깁니다.

그러면 질문 받은 것처럼 만약 이게 1000원으로 오른다면, 천 원을 가지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는가? 햄버거 안 되고 피자도 안되고 육개장 정도 사 먹어야 하는데 그건 천 원 가지고 어렵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신라면 한 봉지가 천 원 한다고 해도 사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소비자가 신라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의 미니멈 벨류(minimum value)가 천 원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가치의 미니멈 벨류는 천 원인데 소비자에게 요청하는 프라이스는 600원입니다. 그러면 400원이라는 잉여가치가 생깁니다. 이 기업은 신라면 한 봉지 팔 때 마다 400원씩을 소비자에게 도네이션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를 가진 기업은 결국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즉, V(가치)가 P(가격)보다 크다는 거지요. 지금 농심은 라면 분야 시장 점유율이 73% 이고 더 나아가 한국을 세계에서 라면 시장 경쟁력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나? 증거는 분명합니다. 중국에서 라면은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라면의 종주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라면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종주국 라면이 우리나라 문호는 개방이 됐지만 한국 시장에 들어올 엄두도 못 냅니다. 거꾸로 신라면이 일본 슈퍼마켓에서 우리나라 진로 소주와 함께 연간 3%씩 판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신라면 공장 세 군데가 있는 데 세 군데가 다 중국 라면 보다 60% 비싸게 팔지만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에 새 공장을 거대하게 지어서 이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V가 P보다 큰, 그래서 미니멈 밸류를 천 원으로 해도 400원이 남는 것, 이게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입니다.

#### 4. 더 나은 가치 창출을 위하여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소비(Sober)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없고, 완벽한 기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소비(Sober)해야 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업이 세계 정상에 서려면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를 가진 제품 혹은 서비스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V가 P보다 훨씬 큰,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소비자가 100원에 느끼는 가치를 100원에 팔면 그때는 장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월의 흐름 속에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졸업하면 취직하겠지? 취직해서 2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된다고 하면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니까 200만원어치 일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은 다 도태된다. 지금 당장 기업은 너희들 한 달 일하는 것에 200만원 월급을 주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이 너희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이고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일하는 가치가 월급의 10배 20배가 되고도 남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너희들은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가 쌓이고 너희들 앞길은 보장된다.

소비자가 100원의 가치를 느끼는 제품을 100원을 받고 팔면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는 축적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감사합니다.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                            |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       |         |         |         |        |
|----------------------------|-----------------|-----------------|--------|---------|-------|---------|---------|---------|--------|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P) | 2005(E) | 2006(E) |        |
| 국<br>민<br>계<br>정           | 경제성장률 (%)       | 8.5             | 3.8    | 7.0     | 3.1   | 4.6     | 3.8     | 4.5     |        |
|                            | 최종소비지출 (%)      | 7.1             | 4.9    | 7.6     | -0.3  | 0.2     | 2.6     | 3.6     |        |
|                            | 민간소비 (%)        | 8.4             | 4.9    | 7.9     | -1.2  | -0.5    | 2.5     | 3.5     |        |
|                            | 총고정자본형성 (%)     | 12.2            | -0.2   | 6.6     | 4.0   | 1.9     | 3.1     | 3.1     |        |
|                            | 건설투자 (%)        | -0.7            | 6.0    | 5.3     | 7.9   | 1.1     | 0.5     | 1.5     |        |
|                            | 설비투자 (%)        | 33.6            | -9.0   | 7.5     | -1.2  | 3.8     | 4.3     | 5.5     |        |
| 대<br>외<br>거<br>래<br>기<br>준 | 경상수지 (억 \$)     | 122             | 80     | 54      | 119   | 276     | 110     | 80      |        |
|                            | 통<br>관          | 무역수지 (억 \$)     | 118    | 93      | 103   | 150     | 294     | 230     | 120    |
|                            |                 | 수출 (억 \$)       | 1,723  | 1,504   | 1,625 | 1,938   | 2,538   | 2,800   | 3,070  |
|                            | 기<br>준          | 증가율 (%)         | (19.9) | (-12.7) | (8.0) | (19.3)  | (31.0)  | (10.3)  | (9.6)  |
|                            |                 | 수입 (억 \$)       | 1,605  | 1,411   | 1,521 | 1,788   | 2,245   | 2,570   | 2,950  |
|                            | 기<br>타          | 증가율 (%)         | (34.0) | (-12.1) | (7.8) | (17.6)  | (25.5)  | (14.5)  | (14.8) |
| 소비자물가 (평균, %)              |                 | 2.3             | 4.1    | 2.7     | 3.6   | 3.6     | 3.0     | 3.2     |        |
| 금<br>융                     | 실업률 (%)         | 4.1             | 3.8    | 3.1     | 3.4   | 3.7     | 3.6     | 3.5     |        |
|                            | 원/\$ 환율 (평균, 원) | 1,131           | 1,291  | 1,253   | 1,192 | 1,145   | 1,020   | 1,010   |        |
|                            | 국고채금리 (평균, %)   | 8.3             | 5.7    | 5.8     | 4.6   | 4.1     | 4.2     | 4.6     |        |